금산사, '제2 깨달음 사회화' 선언하다

개산 1425주년 개산대재서
슬로건에 '지금 머해?' 정해
월주 대종사 유훈 계승 의미
개인, 인류에 실천 화두 던져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유지인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선언을 하고 있는 대중들. 사진 왼쪽부터 한광수 신도회장, 응묵 스님, 평상 스님, 도법 스님, 주지 화평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10월 19일 개산 1425주년을 맞아 봉행된 개산대재에서 '제2 깨달음의 사회화'를 선언했다.

'깨달음의 사회화'는 지난 2021년 입적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평소 주창하고 실천한 대사회운동으로, '제2 깨달음의 사회화'는 후학들이 대종사의 유훈을 이어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졌다.

금산사는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슬로건으로 '지금 머해?'로 정했다. 자기 스스로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질문을 통해 불안과 분노, 욕심에 관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며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인류 멸종위기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금산사 사부대중은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선언문을 나에게 묻는 말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순간순간 지족하며 살겠습니다'를 화두로 던졌다. 사피엔스(인류)에게 묻는 말로는 '덜 입고, 덜 먹고, 덜 쓰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하겠습니다'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선언했다.

개산대법회에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금산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호남 제일 대가람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개산대재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본성을 다시 찾아가는 첫걸음이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자비의 마음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제언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인심은 늘 새로운 곳에 있다'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대중이 금산사 개당을 기념하는 일은 대중들 모두가 밝은 지혜의 안목과 만개의 몸으로 추호의 막힘도 없이 자유롭게 방편을 쓰는데 있다. 동시에 인내의 땅인 사바세계에 함께 사는 벗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과 고락을 나누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범부의 감정과 분별심만 놓아버리면 대도가 하나가 된다"며 "절차탁마의 방편도 놓아버리고 끌어당기는 새로움에 지나지 않으니 인심은 늘 방편이 자유로운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설했다.

금산사 1425주년 개산대재는 대적광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회원스님들의 집전으로 금산사 역대조사 다례재, 개산대법회, 모악산 금빛가요제, 만등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봉행

사미 30명, 사미니 8명 배출


태고종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에서 사미 · 사미니스님이 종단 수행자의 상징인 홍가사를 수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출가수행자 사미 30명과 사미니 8명, 총 38명의 출가수행자를 배출했다.

10월 21일 태고총림 선암사 중앙금강계단에서 봉행된 제4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은 종사이운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스님들에 대한 묵념, 삼사와 칠증사 및 내빈 소개, 수계산림 경과보고, 수계산림 우수자 표창, 수계산림, 체발, 수계증 수여,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산림법회는 삼사에는 전계아사리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교수아사리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혜일 스님이 증참했으며,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부원장 능혜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님, 경기북부종무원장 경월 스님, 전 해외교구장 종매 스님, 정수원장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이 칠증사로 나서 사미십계를 설하고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고 예비스님이 된 수계자들은 연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고 참된 출가수행자로서 전법과 중생교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산림법회에서 최우수상 성문, 우수상 원각, 모범상 혜암, 봉사상 도우·정우, 인욕상 혜명 행자가 수상했다.

이날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수지한 38명의 예비스님들은 지난 9월 20일 태고종 교육원인 정수원에 입소해 31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공의식 습의, 종지종풍과 종단사 교육, 울력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수계산림에는 삼사와 칠증사외에도 총무원의 소임자 스님들과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교구장 스님들과 수계제자들의 은사스님들과 가족들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수계산림법회에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향목, 향선 행자가 출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설정 대종사, '만공 선사 친필 휘호' 기증

10월 21일 임회서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에 기증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대종사는 10월 21일 열린 덕숭총림 임회 제59차 정기회의에서 '만공 선사 친필 휘호' 족자를 공개하고 수덕사 근역성보관에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설정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근역성보관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이 참석했다.

경오년에 쓰여진 만공 선사의 친필 휘호에는 〈화엄경〉 등 각 경전에서 발췌한 글이 쓰여져 있으며, 족자 끝에는 '만공 선사 필'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설정 대종사는 만공 선사가 지녔던 호신불 1점, 바미얀 출토 작은 불상 1점도 함께 기증했다.

설정 대종사는 "귀한 문화유산을 근역성보관에 기증해 대중이 함께 친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정 대종사는 이날 임회에서 덕숭총림 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기증받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금어 일섭 스님 조성 괘불 만나다

송광사, 10월 19일 괘불재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10월 19일 대웅전 앞마당에 '제4회 조계총림 송광사 괘불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모셔진 송광사 괘불은 한국전쟁으로 소실한 괘불을 대신해 1961년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금어 일섭 스님이 조성한 괘불로, 지난 2021년 대중에게 첫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조계총림 수좌 현묵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수행하고 체험을 해야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제자들은 오직 일념으로 순간순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10월 17일 전통문화전수관서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스님)는 10월 17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일반단체가 추천한 지역 어르신 50명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마이산 탑사, (사)붓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케익을 전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달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는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 이불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에 불교 전한 '가락국사' 추모재 봉행

10월 17일, 김해 수릉원서



(사)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10월 17일 김해 수릉원에서 열린 '2024 세계유산 가야축제'에서 가락국사 장유보옥 대화상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재는 가야가 최초의 불교 도래지임을 알리고 전통 불교문화를 승화시켜 김해 지역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추모재를 통해 한국의 문화 문명, 역사 인식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파당 종수 대종사 8주기 추모다례재

10월 22일 김해 화장사서



김해 화장사는 10월 22일 경내 화장보전에서 '한파당 종수 대종사 8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사진〉

한파당 종수 대종사는 지난 1992년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를 설립해 범패강원을 운영하며 200여 명의 후학을 양성했다. 2014년에는 봉화산 정토원과 함께 '중부경남 불교교양대학'을 만들어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능인종 총무원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종사의 8주기를 맞아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수행·정진에 힘 쓰자"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강진 백련사 사찰음식 전시·경연대회

10월 19일 선차문화관서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10월 19일 경내 선차문화관 만경루에서 '제4회 차(茶)와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남도 음식과 사찰음식의 본고장인 강진 백련사를 알리기 위한 의미로 개최됐다. 주지 설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에서는 천년이 넘은 세월 동안 마음의 안심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차와 음식으로 나와 남을 평안케 했다"며 "우리 음식 문화를 즐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화사, 미륵양대탑 건립공덕비 제막

10월 20일 경내서 봉행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 스님)는 10월 20일 경내에서 '미륵양대탑 건립공덕비 제막 및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륵불 앞에 조성한 미륵양대탑은 코끼리와 사자 기단 위에 정림사지5층석탑을 모형을 올린 2개의 탑이다. 탑 조성에 동참한 대중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공덕비를 제막한 것이다.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참대중에게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음악, 클래식 들리는 성주사 음악회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서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10월 19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교음악과 클래식의 조화'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성주사 종각의 사물연주로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가릉빈가합창단의 음성공양, 김해신포니에타(지휘자 이효상) 오케스트라 연주, 바리톤 나한규, 소프라노 오예은의 공연에 이어 클라리네티스트 이소연의 공연, 남성 크로스오버 중찬단 '루체로' 등의 공연이 선보여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제4회 금선 보은문화제

10월 20일 완산체육공원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이 효문화를 계승·선양하기 위한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금선보은문화제는 10월 20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